

우리나라의 심표, 대나무 고장



조 시 형 · 대전 도솔초등학교 4학년

“시형아, 우리가 가고 있는 담양의 아마존이 어디일까? 판다들이 보면 무척 좋아할 텐데?”

“이 척척박사 조시형이 맞춰 드릴게요. 정답은 담양의 ‘죽녹원’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아빠는 이거, 못 맞췄는데?”

“겨울방학 교육방송에서 배웠어요.”

작년에 교육방송에서 대나무의 고장 ‘담양’을 알게 된 후,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다. ‘TV 화면으로만 보았던 대나무의 고장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는 담양을 향해 출발했다. 햇볕이 짹짹 내리쬐는 한여름의 무더위에 우리는 약 세 시간 반 만에 겨우 담양에 도착했고, 커다란 공을 품은 두 마리의 봉황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죽녹원’ 입구에 들어서자, 무더위도 잠시 왔다. 여섯 살 꼬맹이 현후는 이

리저리 통통 뛰어다니며 대나무 숲길을 앞장서 걸어갔다.

“시형아, 대쪽 같다는 말 들어봤어?”

엄마의 말씀에 문득 1학기 국어시간에 배웠던 대꼬챙이 선비, 노극청이 떠올랐다. 청렴 결백하고 성품이 곧았던, 선비 노극청!

“대나무처럼 깨끗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지요?”

명쾌한 나의 대답에 엄마께서는 기특해 하시며, 우리나라의 대나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대나무가 많이 자라, 대나무를 이용해 바구니나 돛자리 같은 생활용품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대나무를 소중히 여겼다고 한다. 특히 휘어지지 않고 곧기만 한 대나무의 깨끗한 기상이 옛 선비들의 곧은 성품을 닮아, 우리 조상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매란국죽의 ‘사군자’에도 어김없이 대나무가 들어간다고 하며 엄마께서는 대나무를 극찬하셨다. 길게 뻗어 있는 대나무 숲길을 가족과 함께 걸으니, 내가 마음이 곧은 선비가 된 것처럼 뿌듯했다.

그때, 내 눈앞에 아빠 팔뚝보다도 굵은 비만 대나무가 딱하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단단하고 뚱뚱하면서도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비만 대나무가 무척 늠름해 보였다. ‘죽녹원에는 대쪽 같은 선비가 이렇게나 많네?’라고 생각하니,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대나무 숲이 곳곳에 많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 어깨가 으쓱해졌다. 대나무는 뿌리가 땅속 깊이 얽혀 있어 세찬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한다. 하늘을 향해 곧게 올라가 햇빛을 받는 대나무의 거침없는 모습에 저절로 감탄사가 펄펄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엄마께서는 호시탐탐 대나무를 탐내 뿔아 가신다고 하며 대나무에 매달

려 계셨다.

“엄마, 이건 불법이에요.”

내가 엄마를 말려, 우리는 겨우 죽세공품점으로 향할 수 있었다. 1억 그루도 넘을 것만 같은 대나무들로 뻗뻗한 대나무 숲의 웅장한 모습을 눈에 가득 담고, 우리는 맛있는 대통밥을 찾아갔다. 대나무는 보기에도 멋있지만 여러모로 쓸모도 많아 밥을 짓는 밥통으로 쓰기도 한다니, 대나무가 더욱 대단해 보였다.

죽녹원의 대나무 숲을 걸으며, 대나무를 사랑한 우리 조상님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꺾어질지언정 절대로 휘지는 않겠다는 강직한 성품의 대쪽 같은 선비들을 만난 것처럼 대나무를 향한 존경심마저 샘솟았다. 답답하게 나무끼리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고, 서로 적당히 떨어져 옹기종기 모여 있는 대나무 숲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아름다운 쉼표가 있는 대나무 숲이 많은 우리나라를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보여주며 자랑하고 싶다. 우리 민족과 함께한 대나무의 향기를 한껏 들이마시고 우리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대나무의 향취가 가득한 선비의 나라, 우리나라를 소개합니다!”